

드라발

“한국 낙농목장의 미래” 국제세미나 앞두고 기자 간담회 개최



드라발은 오는 5월 10일 개최 예정인 “한국 낙농목장의 미래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앞두고 지난 20일 팔레스 호텔 회의실에서 낙농 전문 기자들을 초청 하여 마이클 휴스(Michael Hughes) 동아시아 담당 사장, 펠리페 모레노 (Felipe Moreno)드라발 한국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마이클 휴스(Michael Hughes) 당사 동아시아 담당 사장은 “이번 국제 세미나는 낙농분야 글로벌 기업인 드라발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정보와 현장 경험을 한국 낙농가들과 공유하고 낙농의 한국형 표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개최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 낙농업은 규모화의 급속한 진전과 낙농가 수 감소, 노동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등과 같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FTA와 같은 세계화는 한국 낙농업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해 경험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드라발의 이번 국제 세미나는 한국 낙농업과 낙농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발의 “한국 낙농목장의 미래를 위한 국제 세미나”는 오는 5월 10일 의정부 아트 센터(1부)와 연산 목장(2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드라발 본사의 전문가들이 방한하여, 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

과적인 사양 환경, 젖소의 효과적인 급이와 영양, VMS의 운용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바이오켄

‘네오 진프로’ 소포장 시판

신한바이오켄(회장 구분현)은 20kg으로 포장된 진프로를 ‘네오 진프로’로 새롭게 제품명칭을 받아 1kg 단위포장으로 재포장해 시판한다고 밝혔다.

신한바이오켄은 체세포를 줄여주는 ‘진프로 (Zinpro)’를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 공급해 그동안 낙농산업 발전과 함께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 진프로는 이미 국내외에서 체세포 감소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진프로는 유방조직 내 점막세포의 치밀도와 면역능력을 개선시키는 아연이 반추위를 우회해 흡수소와의 결합 없이 장 점막을 그대로 통과하는 메치오닌 복합물 형태로 결합시킨 미국특허 제품이다.

진프로는 급여 후 체세포 수준은 54% 감소시키고(여주군 농업기술센터, 1997년), 산유량은 1.2~1.9kg 증가시켜(미국 내 8회 시험결과) 체세포수 등급에 따른 유대 차등지급 체계에서 낙농소득을 극대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분만 후 재귀발정 기간이 단축되고 수태율이 향상되며 산유량증가 및 부제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두산 백두사료

대대적 방역으로 악성가축질병 차단

두산 백두사료(BU장 정진향)가 구제역 등 해외 악성가축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산 백두사료는 이미 몇 년전부터 농장 청정화 운동을 시작, 농장들이 안심하고 경쟁력 있는 농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으며, 특히 두산 백두사료는 공장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활동을 강화하고 공장 및 하치장 소독 강화, 그리고 벌크차량 세차 및 청결을 유지하며, 환절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절기 보강 사료도 공급하고 있다. 또 공장, 하치장 및 농장 내·외부 시설,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을 펼치고 있고, 벌크 운반차량에도 환절기 캠페인 플래카드를 부착해 방역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CJ(주)

사료BU 남원시장 판촉활동 시동



육,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남원시청 축산과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벌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한미 FTA 타결 등 어려운 축산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에 목마른 250여명(비육농가 180명, 양돈농가 70명)의 사양가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남원시청의 'FTA 타결 대응교육'을 통해 'FTA극복은 농가 생산성' 이라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하였으며, 농가 생산성 향상엔 효율 높은 사료가 필수임을 감안, 참석한 모든 사양가들이 CJ사료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CJ 사료 실증자료 및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질의응

CJ(주) 사료BU (부사장 이병하)는 지난 달 16일 전북 남원에서 지역 비

답이 오갔다.

이번 홍보행사를 진행한 양정현 지구부장은 "FTA 타결로 인한 농장의 경쟁력 확보는 바로 생산성이며, 고효율의 사료와 검증된 프로그램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로 고객의 최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CJ 사료'를 홍보하는데 목청을 높였다. 이에 덧붙여 양부장은 "현재 남원지역에 CJ사료의 컨설팅센터 조직이 없어 공백시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판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부장은 홍보행사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남원 축산농민의 수익을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발판으로 앞으로 남원 사양가들에게 기술 판촉 및 서비스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전을 기대해 본다.

중앙진테크

출품 축 관리 요령 및 털 깎기 세미나 개최

(주) 중앙진테크에서는 오는 10월에 열릴 한국중축개량협회 홀스타인 품평회를 대비하여, 지난 3월에 열린 출품 축 관리 요령 및 털 깎기 세미나를 9월에 재 개최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ABS 전문 강사인 Mr. Steven Pavelski가 초빙된다.

기간은 약 5일에 걸쳐서 경기도 안성지역이나 서울에서 이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실습은 전국 우수 목장에서 몇일간에 걸쳐 시행될 것이다. 약간의 실습용 준비물이 필요하며, 참석 대상 및 인원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올바른 품평회 준비이론의 정립화 및 실습을 위하여 국내 우수 젖소 공급업체인 ABS 사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